해양폐기물 수거 전국 2위 전남, 전용 수거선 노후화 심각

5년간 19만7033 t …전국 57만446 t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 꾸준히 증가

전남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 양폐기물을 수거하며 해양환경 관리에 나서고 있 지만 현장에서 투입되는 전용 수거선의 상당수가 20년 넘은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민 안전과 효 율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장비 관리・사고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19만7033 t 으로 제주(49만3778 t)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

이어 충남(6만7943 t), 경남(5만2500 t), 경 북(4만5823 t) 순으로 폐기물량이 많았다.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57만 446 t 에 달하는 것으

전남의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0년 4만1325 t에서 2021년 3만3535 t으로 줄었다가, 이후 2022년 3만4671 t , 2023년 4만2475 t , 2024년 4만5027 t 으로 다시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폐어망•폐어구 등 어업 부산물 과 해안가 밀려드는 부유쓰레기, 양식장 주변 폐 어민 안전・효율적 수거 대책 필요 기물이 꼽히지만 이를 수거할 장비의 노후화가 여 전히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 전남이 보유한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5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중 4척은 20년을 훌쩍 넘 긴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914호'(1997년·125 t), '전남915호(완 도)'(1997년·125 t), '전남919호(여수)' (2001년·115 t), '전남921호(여수)'(2001년· 151 t)는 모두 1990년대 후반에서 2001년 사이 에 건조됐다. 비교적 최근에 투입된 '청정고흥호' (2019년·15 t)는 규모가 작아 광역 수거에는 한 계가 있는 실정이다.

> 장비가 노후화 될 경우 악천후 시 수거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대형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거 체 계를 유지하려면 단계적인 장비 교체가 불가피하 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정화사업에 투입했다. 이 중 835 억 원은 침적 폐어구 수거 등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에 사용됐고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전

국적으로 2만1215 t 에 달한다.

폐어구 수거량은 2020년 2650 t, 2021년 3721 t, 2022년 4248 t, 2023년 3819 t, 2024년 4392 t 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만 2385 t 이 수거 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

하지만 해상에 떠다니는 폐어망과 부유쓰레기 는 여전히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선박 추진기에 해상 부유물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부유물 감 김' 사고는 같은 기간 228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 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이 미 321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 연안은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복잡한 해류 특성상, 폐어망과 폐부유물이 떠돌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수거에 앞서 해양폐기물이 어장 과 항로에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 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버려지는 자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21일부터 '주민리더 양성교육'

광주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마을의 자원순환 문화를 이끌어갈 자원순환 주민리 더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자 원순환 주민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자원순환 주민리더는 생활 속에서 버려지 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 어와 실천을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한다고 1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3인 이상의 팀을 기획하고, 실 천하는 경험할 수 있으며, 팀 활동은 현장 위 주의 체험과 캠페인, 모니터링 등 주제별에 맞 는 공간과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멘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29일까지 두 차례의 여는 강좌 와 한 차례의 현장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21일에는 폐식용유로 비누로 만든 김민우 강청 대표, 버리는 자원을 다시 재탄생 시키는 문윤식 희망자원 본부장, 재사용 문화를 지역 에서 만들어 온 한혜영 아름다운가게 본부장 과 함께하는 지역의 자원순환 고수들과의 대 화가 열린다.

24일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알맹상점 대 표 금자의 강연이, 29일에는 경기도 화성 아

이엠 팩토리의 공장 견학이 진행된다.

강좌와 현장답사 이후 주민들은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패스트패션, 먹거리, 공유·나눔, 수리·수선 중 하나를 선택 해 팀별로 3가지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수행한 내용은 기록해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쎄쎄쎄 수고했데이'에서 발표도 진행한다.

자원순환 주민리더 양성 교육은 자원순환 에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 다. 양성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에게는 ▲전 회 차 참여자 수료증 수여 ▲2026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공모사업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한

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친환경자원순 환센터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이번 프 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활밀착형 교육"이라며 "쓰레기 문제 를 함께 해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획산시킬 주민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중증 재택환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전남. 시범사업 이용률 전국 꼴찌

전남 지역의 중증 재택환자 의료 접근성 위한 일 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 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전남의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 여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의 과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인 천(26.9%), 세종(28.6%), 전북(29%) 등이 뒤 이었다. 광주의 참여율은 53.1%로 전국에서 3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과 참여율의 경우에도 전남은 29.4%, 광주 는 33.3%로 전국 평균(34.4%)을 밑돌았다.

박 의원은 의료접근성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와 달리 오히려 광역 지자체에서 참여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에 10만 5950건 (61.6%), 한의과는 서울·경기·인천에 9만 2627 건(38.6%)이 집중되는 식이라는 것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오늘부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동시 에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 엔자·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종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5일 70~74 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을 비롯해 면역저 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 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 참해야 한다. 단,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증빙 서류 (진단서,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를 제시하 거나 접종 의사로부터 면역저하자라는 판단을 받 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 지는 만큼,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인플 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 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 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 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산구은빛마루노인복지회관 전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은빛마루광산구노인회관' 개관 스크린파크골프장·카페 등 시설

광주시 광산구에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 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은빛마루 광산구노인회관'이 문을 열었다.

광산구는 14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은빛마루 광산구노인회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회관은 광산구는 연면적 595.41㎡ 지상 4층 규 모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에는 총 19억 50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됐다.

회관 내에는 스크린파크골프장과 조망 특화형 은빛마루카페 등이 설치됐으며, 어르신들이 주체 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

며졌다. 특히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노인회관 시설 내에 설치된 것은 광주시 내에서 최초다.

올해는 파크골프와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진 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치매예방교육 프로그 램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광산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은 누 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 경로당에 가입돼 있 는 노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은빛마루광산구노인회관 은 단순히 복지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어르신들 을 연결하는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 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 시설 을 확충해 포용과 연대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 다"고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